
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한국문화(케이컬처)가 이끄는 국가도약, 국민행복 -

2023. 1.



문화체육관광부

순서

I.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2
III. 2023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	4

I. 추진성과와 평가

□ 수출 시장의 떠오르는 강자, 케이-콘텐츠

- 시장에 절실한 자금 공급('22년 5,268억 원)과 대표 분야 육성으로 콘텐츠산업은 연평균('17~'21년) 매출 5%, 수출 9% 급성장,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부상
 - * 콘텐츠 수출 124억 달러('21년)로 가전(86), 이차전지(86), 전기차(69), 디스플레이 패널(36) 추월
-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, '이상한 변호사 우영우'의 글로벌 성공, 방탄소년단(BTS)에 대한 전 세계적 환호 등 케이-콘텐츠의 세계 위상 강화
 - * (영국 모노클 '20년) 한국 소프트웨어 세계 2위 (한국인 의식조사 '22년) 국민 66% "한국은 이미 문화산진국"
-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및 세액공제 적용, 방송영상산업진흥 중장기계획 발표(12월) 등 케이 콘텐츠 신산업 성장을 위한 디딤돌 마련

□ 전 세계 관광의 본보기(롤모델)로서 한국(케이) 관광 기틀 마련

- "스페인 한국주간(7월)" 등 한국문화(케이컬처) 융합형 마케팅 및 출입국 규제 완화*로 '22년 외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235% 증가(318만 명/잠정)
 - * 각국유전자증폭검사(PCR) 의무검사 폐지 일본대만 대상 선제적 무사증 입국(8~10월), 무사증제도 전면 복원(11월)
- 개방된 청와대를 역사, 문화예술, 자연유산(수목원), 전통문화재가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재구성 * 장애예술인 특별전(8·9월) 및 문학 전시 개최(12월~23.1월)
- 민관이 함께 '한국문화(케이컬처)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'로 도약을 다짐하는 새 정부 첫 관광 진흥계획 수립(12월, 국가관광전략회의)

□ "약자 친화(프렌들리)" 정책 공세적 확대

- 역대 정부 최초 "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계획(9월)" 수립으로 장애예술인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기틀 마련, 장애인 친화(프렌들리) 정책 확대*
 - * (문화)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의무 규정 마련(9월),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수어 통역 의무화 (체육) 사회통합형 '반다비 체육센터' 1호 개관(8월), 제1회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개최(9월) (관광) '열린관광지' 조성(20개), 무장애 관광도시(강릉) 최초 조성
- "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"(12월)을 통해 문화가 이끄는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2030 청년자문단 선발(21명, 12월)로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문화정책 발굴·개선

□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개혁과 글로벌 확장

- 학생선수의 운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 개혁(출석인정일수 정상화 추진), 경기장 안팎을 잇는 민관협력 안전 모델 창출(한국시리즈), 역대 최대규모의 전국체전(10월)
-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(11월),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(ANOC) 총회 성공적 개최 및 카타르월드컵 참가로 스포츠와 한국문화(케이컬처) 융합*의 새로운 지평 확장
 - * 포춘 지 선정 2022 카타르월드컵 국가별 소프트파워 2위(1위 프랑스, 3위 모로코, 4위 일본)

II.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- **케이-콘텐츠·한국(케이) 관광, 국가도약을 이끌 전략산업으로 육성**
 - 케이-콘텐츠 경쟁력 입증에도, 자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(IP) 해외 유출 심화. 콘텐츠산업의 연관산업 파급효과*에도 불구하고, 국가적 육성 전략 부족
 - *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.8억 달러 증가. 특히, 비중화권 음악·방송·영화 등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수출 5.27억 달러 증가('22년, 한국 수출입은행)
 -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기술과 결합하여 세계적 콘텐츠 지식재산권(IP)으로 성장하고, 제조업·서비스업 등 타 산업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지원 필요
 -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,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국문화(케이컬처) 융합을 통한 독보적 매력으로 관광산업 재도약 추진
 - * 한국방문 이유 1순위 문화체험즐길 거리 (케이팝, 한류 관련 포함) (2021 잠재방한여행자조사)
- **코로나 19로 심화된 격차를 회복하고, 균형발전을 이끄는 문화**
 - 문화·체육·관광 활동 회복은 코로나 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, 저출산·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격차도 심화*
 - * (문화예술행사 관람률) '19년 82%→'21년 34%, (국민 여행 횟수) '19년 7.6회→'21년 5.4회 (문화예술관람률 격차) 소득별 '19년 1.78배→'21년 3.32배 / 지역별 '19년 1.18배→'21년 1.81배
 -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, 세대·지역·계층·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공정한 문화 누림으로 국민 행복 추구
- **창의적·도전적 예술성과를 한국예술(케이아트)로 체계적 육성**
 - 국제 콩쿠르 석권, 해외 문학상 수상**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, 체계적인 인재양성과 해외 진출 지원으로 차세대 한국문화(케이컬처), 한국예술(케이아트) 육성
 - * 임윤찬, 양인모, 최하영...37명 한국인, 상반기 국제 콩쿠르 석권(뉴시스, '22.6)
 - ** 이수지, 아동문학계 노벨상 '안데르센상' 수상('22.3), 정보라 '저주토끼' 부커상 최종후보('22.4)
 -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등 예술 창작·향유 방식 다변화 및 시장 확대*, 자생적 생태계를 위한 예술산업 육성 및 신기술융합 미래예술 기반 강화 필요
 - * (미술) 3,849억 원('20)→7,563('21)→10,377('22), (공연) 1,730('20)→3,068('21)→5,500('22 추정)으로 회복 및 확대
- **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체육인 중심 스포츠 정책**
 -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제2의 신유빈 사례*를 방지, 국가대표 위상에 걸맞은 지원으로 체육인 자긍심 고취 필요
 - * 탁구 신유빈 등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학사규정을 이유로 고교진학 포기

2 비전 및 추진과제

비전

국민이 함께하는 **문화매력국가**
한국문화(케이컬처)가 이끄는 국가도약, 국민행복

가치

자유 · 혁신 공정 · 연대

목표

케이-콘텐츠, 수출 강자 위상 강화	한국(케이) 관광으로 국제관광 무대 주도	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기회 확대
<p>콘텐츠 수출액 ('21) 124억 달러 →('23) 150억 달러 →('27) 220억 달러</p>	<p>외국인 관광객 수, 관광 수입 ('21) 97만 명, 103억 달러 →('23) 1천만 명 160억 달러 →('27) 3천만 명 300억 달러</p>	<p>문화·체육활동 참여율 문화 체육 ('21) 34% / 61% →('23) 75% / 64% →('27) 85% / 70%</p>

핵심
추진
과제

(자유·혁신) 한국문화 (케이컬처)가 이끄는 국가번영	① 케이-콘텐츠, 수출 지형을 바꾸는 승부수(게임체인저)
	② 2023년,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
	③ 한국문화(케이컬처)의 차세대 주자, 예술
(공정·연대) 한국문화 (케이컬처)로 행복해지는 국민	④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
	⑤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
	⑥ 현장 속으로, 다시 뛰는 한국(케이) 스포츠

III. 핵심 추진과제

1. 케이-콘텐츠, 수출 지형을 바꾸는 승부수(게임체인저)

- ◇ 창의적 아이디어가 세계적 콘텐츠 지식재산권(IP)으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
- ◇ 케이-콘텐츠 전략적 수출 확대 및 제조업·서비스업의 수출견인 총력 지원

① 청년의 도전정신 자극하는 창업초기기업(스타트업)·벤처 지원 확대

- (기획·개발 지원) 예비창업자·창업초기기업의 참신한 콘텐츠 기획안이 창업·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기획·개발 단계부터 지원
 - * 게임(50억 원), 영화(70억 원), 방송(18억 원), 웹툰(33억 원), 패션(4억 원)
- (단계별 지원) 창업 초기(~3년)-도약(3~7년)-글로벌 진출 등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, 사업모델 혁신(법률, 노무, 마케팅 등) 지원(103억 원)
- (미래 인재)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*, 창의인재 동반사업** 등 잠재력 높은 인력에 대한 현장형 교육으로 취·창업 지원('23년, 564억 원/3년간 1만 명)
 - * 콘텐츠 기획·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
 - **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 지원(드라마 <이상한 변호사 우영우>의 문지원 작가 등 배출)
- (신산업 모델 지원) 신(新)사업 모델(웹툰 전문 번역 등), 신(新)기술 [인공지능(AI), 확장가상세계(메타버스) 등] 기반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술개발 지원
 - * 방송(70억 원), 웹툰(15억 원), 음악(27억 원), 패션(10억 원), 출판(12억 원), 기술개발(74억 원)
- (공정·상생 환경 조성) 문화산업공정법 제정('23) 및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창업초기기업 등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
 - 방송제작진(스태프) 노무 상담, 제작지원작(作) 대상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지속 확대

②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 지원('22년 5,268억 원→'23년 7,900억 원*)

- * 케이-콘텐츠펀드 4,100억 원, 완성보증 2,200억 원, 이자 지원 1,600억 원
- (케이-콘텐츠펀드) 중소기업 위주로,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산업에 대해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('23년 4,100억 원 조성 목표)
 - 세계적인 지식재산권(IP)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지식재산권(IP) 펀드('23년 1,500억 원 조성 목표) 조성
- (모니터링) 콘텐츠업계의 자금경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*하고 민관 합동 지원방안 마련 * 콘텐츠기업, 금융권, 보증기관, 정부, 공공기관 등 참여

③ 케이-콘텐츠 분야별 맞춤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

- (케이팝) 온라인 케이팝 공연을 통한 비대면·글로벌 확산(80억 원) 및 음악+신기술의 결합*(82억 원) 등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 선점
 - * 티켓 판매, 음원 거래, 작사작곡, 팬클럽 등 기존 음악산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(ICT) 융합
- (한국 영화·드라마) 제작-체험-인력양성 기능 집약형 콘텐츠 기반 구축*, 세계 시장으로 즉시 유통 확산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 콘텐츠 집중 육성**
 -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(1월), 자체등급분류제 도입(3월),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(7월) 등 제도·규제 혁신
 - * 특수영상 클러스터(~'25년, 총 1,476억 원), 부산종합촬영소('23~'25년, 총 660억 원) 등
 - **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특수콘텐츠 제작지원454억 원, 다국어막다빙사각효과 등 현직업 지원300억 원 등
- (한국 게임) 다년도 제작지원 도입(90억 원, 신규) 및 콘솔 등 전략 플랫폼 육성, 이스포츠 대회 확대(대통령배, 1회→2회)로 우수 선수 발굴
 - * 세계 4위의 게임 강국, 수출액은 86.7억 달러, 콘텐츠 수출의 70%('21)로 수출견인 산업
- (한국 웹툰·웹소설) 웹툰융합센터('23년 6월 개소, 총 500억 원)를 통한 작가기업 종합 지원 10억 조희(부) 작가 육성(10억 원) 및 저작권 보호 강화**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
 - * '재벌집 막내아들(웹소설→웹툰→드라마)' 등 콘텐츠가 흥행, 이야기 원천으로서 중요성 부각
 - ** 불법 웹툰·웹소설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, 웹툰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, 수사 전문화 등

④ 케이-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

- (콘텐츠 수출)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거점 확대('22년 10개소 →'23년 15개소* →'27년 30개소 목표)로 콘텐츠 수출 전방위 지원(80.5억 원)
 - * 추가 5개소: 미국(뉴욕), 싱가포르, 인도, 영국, 멕시코 등
 - '한류 데이터센터' 구축(15억 원)을 통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출지원, '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' 구축(12억 원)을 통한 침해 신속 대응
- (연관산업 수출견인) 케이-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케이 유행(신드롬)을 활용, ①콘텐츠+②제조업·서비스업 동반 해외 진출 확대*
 - * 케이-브랜드 홍보관(인니, '22년 12월 개소)을 통해 콘텐츠, 화장품, 식품 등 공동홍보(40억 원), 콘텐츠-소비재 동반 진출 해외 케이-박람회(20억 원), 한류연계 마케팅(45억 원) 등
 - ※ (참고사례) 미국 영화 '바람과 함께 사라지다(1939): 영화 상영을 계기로 미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공산품 수출 규모가 크게 성장(1935년 23억 달러→1955년 156억 달러)
- (추진체계 혁신)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수출전담조직인 "한류지원 본부" 신설*로 콘텐츠·연관산업 해외 진출 지원의 추동력 확보
 - * 7개 본부→5개 본부로 축소(슬림화)해 기관의 생산성·효율성은 증대, 수출지원은 강조

2. 2023년,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

◇ 관광과 한국문화(케이컬처)의 매력적인 융합(Convergence),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한국(케이) 관광(Charming attractions), 관광 기반의 재정비와 재도약(Convenience) 전략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관광대국의 원년으로 도약

1 관광과 한국문화(케이컬처)의 독보적·매력적 융합

- (2023 한국방문의 해) 범국가적 환대·주요 행사 연계·네버엔딩 한국문화(케이컬처) 등 민관협력을 통해 한국문화(케이컬처)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 관광 수요로 전환
 - * (환대) 항공·숙박·쇼핑·식음 할인 등 분야별 관광업계 참여, 부처·지자체 공동마케팅 (행사) 케이팝 가수 출연 초대형(메가) 콘서트,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연계 축제 확대 [한국문화(케이컬처)] 포즈, 자스타 국제도사전 등 전국 대표 행사 100선 선정 365일 연속 체험 콘텐츠 운영
- (케이-관광 로드쇼) 국제관광 본격 재개 계기, 한국문화(케이컬처) 열기가 한국방문 수요로 전환되도록 한국문화-관광 종합홍보 행사 개최(23년 15개 도시)
- [한국 관광 확장가상세계(메타버스) 경험 한국(케이) 드라마 영화 이야기 활용 광고 제작(23년) 및 확장가상세계(메타버스) 내 한국여행 체험으로 청년(MZ)세대 대상 한국방문 신규 관심층 창출
- (국가대표 관광지 청와대) 청와대 권역 역사·문화·관광자원을 이야기로 연결한 클러스터 조성, 방한 관광 매력물의 대표 주자로 홍보
 - * 청와대 중심 (동)박물관 미술관 (서)통인동서촌 문화거리, (남)경복궁, 광화문, (북)북촌 등 연결 - 관광 시범상품 개발(23년1월) 및 주한 외국인 해외 유력 영향력자(인플루언서) 홍보 관광 캠페인
- (문화유산 활용) '문화유산 3대 축전(궁중문화, 세계유산, 무형유산, 120억 원)', '문화유산 방문 캠페인'(10개 코스, 80억 원) 등 활용 관광브랜드 육성

2 다시 찾고 싶은 안락하고 편리한 나라

- (입국제도 개선)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단체심사 도입 및 다국어 지원 (일본어·중국어 등) 추가(23년~), 지방공항 무비자 특례 확대(무안, 3월~)
 - 수요 대비 발급이 부족한 동남아 지역 비자발급 체계개선* 및 '케이-컬처 연수비자'(최대 2년) 신설 추진(23년~)
 - * 필리핀 비자신청센터 신설(23년 하반기),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(인센티브 수혜여행→일반), 비자발급 기간 축소
- (관광교통·쇼핑환경 개선) 관광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* 및 쇼핑환경 개선** 등 편안한 관광환경 조성을 통한 재방문 의사 확대
 - * 지역 교통거점 출발 관광지 경유로 노선 조정, 관광객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시범 운영각 2개 지역
 - ** 즉시 환급 사후면세점 200개소 및 모바일페이 가능 업소 1,000개소 설치

③ 형클어진 관광생태계를 복원하는 재정비·재도약 전략

- (규제혁신을 통한 재도약 지원)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*, 고용지원·해외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 인력난 해소 추진
 - * ▲ 호텔업·유원시설업·국제회의업 사업자 부담완화 및 관광사업자 재창업 규제 완화, ▲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연장('22년→'25년), ▲ 방문취업 비자(H-2)적용 업종확대(45성 호텔 마이스업)
- (관광기업 세계 경쟁력 강화)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3,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('23년),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* 확충('23년 도쿄)으로 투자 확대
 - *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('22년 8월) 이래, 4개월간 투자 82억 원 유치 성과
- (스마트·디지털 관광 전환) 스마트 관광도시 신규 조성('23년 3개소), 전통 관광업계와 여행 기술(트래블 테크) 기업 협력 연계망 강화
- 관광정보통신기술(ICT) 융합형 교육 운영 및 지역대학 등 산학 연계 현장 중심 역량 강화
- (신시장 창출로 산업 흐름 선도) 건강·복지의 관심 증가에 따른 웰니스·의료관광 육성, 한국문화(케이컬처) 융복합 국제회의 발굴 등 마이스업 재도약 지원*
 - * 웰니스관광도시 선정('23년~, 연 1개소), 웰니스의료관광융합클러스터 선정('23년~, 6개소), 의료관광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(비자 개선 등) 및 맞춤형 마케팅 강화
 - ** 세계적 한국(케이) 컨벤션 운영,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확대('22년 5개소 → '23년 이후 7개소)

3. 한국문화(케이컬처)의 차세대 주자, 예술

- ◇ '수요증대·유통 활성화 정책' 및 '투자적 지원'으로 예술산업 성장
- ◇ 기초예술 지원의 창의적 성과를 한국예술(K-Arts)로 육성

① 자유로운 도전과 혁신의 창작환경 조성

- (다년간·단계별 지원 강화) 다년간 지원확대 및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창작단계로 연계 지원하여, 우수 작품 지원 시스템 강화
- (예술-기술융합) 창작에 필요한 기술·공간·장비 활용 이용권(바우처) 도입 ('23년 21억 원), 한예중-기업-공과대학 협업사업을 통한 예술의 영역 확장
- (창작 대가 현실화) 현장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창작대가 관련 기준 정비*
 - * (시각) 창작대가 지급기준 및 지원규모 상향, (공연) 최소평균 사례비 단가 가이드 마련 및 적용, (문학) 원고료 평균 단가 상승 적용, 서면 계약서 체결 의무화

② 미래 인재의 상상력과 독창성 키우는 기반 강화

- (미래예술 인재 발굴) 한예종 영재교육원 추가 조성('23년 광주), 국립예술단체 및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 확대로 특화 교육 강화
 - 신진(창작준비금, 60억 원)·청년예술인(생애 첫 지원, 35억 원) 예술계 안착 지원
 - (현장인력 양성) 현장과 대학을 연결, 예술대학생 역량 강화('23년 58억 원 신규), '예술경영아카데미'를 '예술산업아카데미'로 개편하여 예술산업 인력 맞춤형 교육
 - (예술 활동 종합지원 플랫폼) ①창 제작, ②교류 교육, ③시연·유통, ④창업·창직 등 예술 활동 및 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아트코리아랩 조성(116억 원, '23년 6월 준공)
 - 공연, 시각예술, 문학 등 장르별 융복합·다목적 창작·향유 기반시설 강화*
- * (공연) 서계동 국립공연단지('23년 설계),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('23년 5월 준공), 정동극장 재건축('23년 착공), 부산 국제아트센터('23년 공사), 평택 평화예술의전당('23년 설계)
 (시각) 당인리 문화공간('23년 착공), 국립디자인박물관('23년 설계)
 (문학) 국립한국문학관('23년 공사)

③ 한국예술(케이아트), 해외 예술시장의 신흥강자

- (미술) 미술진흥법 제정, “키아프-프리즈” 연계 개최·작가(150명) 집중 홍보(~'26), 미술주간 등 법·제도-유통-향유로 연결되는 활성화 생태계* 마련
 - * (창작) 신진작가 발굴 및 원로작가 홍보 확대, (유통) 작가 미술장터 개최, 아트페어 육성, (향유) 민간 협업 기획전시, 국립기관·공공시설 대여 전시, 미술주간 등 향유기회 확대
- (공연) 국립기관 대표 공연(국악, 무용 등) 현지 소개, 한국(케이) 뮤지컬 국제 시장 등 해외 진출 지원, 첨단기술 활용 공연(15억 원), 창 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(156억 원)
- (문학) 한국문학 해외진출 플랫폼(KLWAVE) 구축('23년) 및 번역 대학원 대학 설립(~'25년), 문학나눔 도서보급, 상주작가 지원 등 유통채널 다각화
- (공예) 우수 공예품 창작지원 및 유통 확대, 국내외 공예박람회를 통한 한국공예 국제 유통망 발굴·개척



4.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

◇ 문화를 통한 지역의 새 도약과 어느 곳도 뒤처짐 없는 균형발전 지원

① 문화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

- (문화로 이끄는 지역 활력) '대한민국 문화도시*'로 지역 고유성 특화 발전 ('23년 7개소) 및 문화취약지역 문화공연·기반 등 맞춤형 지원(6개, 46억 원)
 - * 지역 문화자원 활용 브랜딩, 인프라콘텐츠인력 등 종합 지원(4년간 도시당 200억 원 내외)
 - 수도권 편중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인력 양성(300명), 일 경험 지원(70명), 지역대학 연계 청년 관광두레(20개), 후원단(서포터스, 20개팀) 지원
- (고품질 문화프로그램 확대) '이건희 소장품 순회전*' 및 국립 예술 단체 공연 확대, 지역별 '문화가 있는 날' 기획프로그램 강화**
 - * 국립광주박물관의 경우, 순회전 이후 방문자 수가 월평균 2만 명→14만 명으로 증가
 - ** '청춘마이크', '실버마이크' 등 청년·어르신 공연지원, 문화단체 간 협력 기획사업 신설 등
- (지역 대표 기반) 지역별 자산을 활용한 문화특화클러스터 육성*, 국립박물관 지역 이전**, 노후 산단 등 유휴시설 활용 문화기반 조성
 -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(부산·광주·대전 완료, 경남 '23년) 및 지역거점별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조성('23년~, 개소당 1~5천 석)
 - * (예) △대구: 공연(옛 경북도청), △부산: 영상(영화의 전당), △강원: 기록문화(국가문헌보존관)
 - ** 국립민속박물관(세종),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
- (스포츠 연계 지역특화) 지역특화형 스포츠+관광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(40억 원), 접근성·경쟁력을 고려한 스포츠도시(종목+도시) 선정·집중 지원*
 - * 지역별·종목별 스포츠대회·리그, 스포츠 행사 발굴, 국제대회 유치 등

② 지역별 고유 매력 담은 관광으로 지역 경제 선도

- (케이-관광 휴양벨트 조성) 광주-전남-부·울·경 연계 남도문화예술-한국형 웰니스관광-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조성(3조 원 규모, '23~'33)
 - 범부처 협업으로 '가고 싶은 케이-관광 섬' 육성(5개 섬, 각 100억 원)
- (생활이 여행이 되는 나라) 여행수요 촉진, 휴가지 원격근무(위케이션)·살아보기형·야간관광 등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관광으로 살리는 방문자 경제** 실현
 - * '여행이음카드' 신규 추진(정부·지자체·기업이 국내여행 포인트, 관광지·관광상품 할인 등 혜택을 집약 제공), '여행가는 달' 비수기 정례 개최(6월)
 - ** 정주인구 1명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관광객 약 41명 필요(문광연, '22)

5.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

- ◇ 약자 친화(프렌들리) 정책의 짜임새 있는 수립과 함께 속도감 있는 실행
- ◇ 전 국민이 문화를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

① 장애인·비장애인의 장벽 없는 어울림

- (문화 경험) 국립박물관 장애인 접근성 종합계획 수립(‘23년) 및 사립 박물관 미술관 디지털·무장애 관람환경 개선(22억 원) 등 장애인 문화향유권 제고
 - 열린 관광지 조성(‘23년, 20개소, 50억 원) 연계 중증장애인 등 관광경험 제공 프로그램 확대 및 무장애 교통수단 도입(‘23년~, 10억 원)
- (정보 접근) 공공·문화예술기관 주요 발표 시 수어·점자 지원(‘23년~)으로 시청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확대,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추진(‘23년~)
- (창작활동) 역대 정부 최초 수립 제1차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(‘22년 9월)에 대한 법·제도, 기반시설, 지원사업 등 후속 조치* 철저 추진
 - * (법·제도)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관련 시행령 마련(3월), 공연전시의 정기적 실시 관련 법 개정 (기반시설)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개관(6월), 서울 도심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조성(‘23년 신규) (창작지원)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및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(‘22년 226억 원→‘23년 262억 원)
- (어울림 대회) 장애인-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루는 어울림 리그전 도입(‘23년), 국내 최초 ‘장애인 이스포츠 대회’ 개최(‘23년)

② 취약계층의 문화·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문화 격차 해소

- (통합문화이용권) 이용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, 활동 보조 인력 지원 등 맞춤형 이용지원 강화
- (취약계층 스포츠활동 접근성 강화) 저소득층 유·청소년, 장애인, 임신·출산 여성 등 스포츠활동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
 - *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확대(월 8.5→9.5만 원), 행복나눔 스포츠 교실버스, 여성체육활동 지원
- (수혜자 선택형 문화예술교육) 복지시설(아동, 장애인, 노인) 중심 교육에서 지역 문화기반시설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자율적 선택권 보장(223억 원)

③ 단순 복지를 넘어선 문화예술 참여 기회의 확장

- (실버이야기예술인) '이야기 할머니'를 문화예술활동으로 확장 개편, 경연대회를 통해 스타 발굴·전통이야기 콘텐츠 제작·해외 보급('23년)
- (사회문화예술교육) 생애주기별 관심·특성 반영 문화예술교육 지원* (112억 원) 및 문화예술치유 콘텐츠 보급·확산** (36억 원)
 - * (아동) 꼬마작곡가, 주말예술캠퍼스, (청소년) 송캠프, 건축학교 (청년) 직장인 문화예술교육, (중장년) 생애전환학교, (노년)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등
 - ** 치매 의심 노인, 정신건강 상담자, 학교 부적응학생 등 대상별 프로그램 확대(118개 → 180개)
 - 학교 안팎, 예술가 단체 협력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확대*, 문화소외지역 '예술꽃씨앗학교('23년 45개교)' 지원 등 정규·방과 후 예술교육의 전문성 강화
 - * 다함께돌봄센터, 지역아동센터 등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(420개)
- (인문가치 확산) 청소년 인문·문화프로그램(50개소)·은퇴 전후 중장년 청춘문화공간(17개소, 신규)·찾아가는 인문강좌 '우리가치 인문동행'(600회) 등
- (문화로 연결) 사회적 관계 회복지원을 위한 '연결사회 지역거점' 운영, 외로움·사회적 고립감 해소 프로그램* 제공('23년 5개소, 13억 원)
 - * 문화예술 체험, 생활체육, 심리 및 인문상담 등 연결사회 문화프로그램

④ 문화로 세계인과 연대하는 대한민국

- (한국어 확산)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 1만 명 육박('22.9월, 9,148명) 등 전 세계 한국어 수요 폭증에 따라 세종학당 확대 지정*(244→270개소)
 - * 세종학당 총수강생 수 '22년 14.7만 명에서 '27년 50만 명 달성 목표('23년 21.2만 명 목표)
- (쌍방향 교류 활성화) 한국문화의 높아진 위상에 따라 아웃바운드 문화교류와 해외 수요에 따른 인바운드 문화교류 병행*
 - * (프로그램) 제14회 한·중·일 문화장관회의(8월, 전주), 상호문화교류의 해(카자흐 '23, 캐나다 '24-'25), 코리아 시즌(1개국), 수교 계기 문화교류 사업(8개국) 등 (인프라) 스웨덴·오스트리아 문화원 신설('23년 상반기)로 북·중유럽 교류 강화, 뉴욕 문화원을 코리아센터로 확대·개원('23년 하반기)하여 세계 주요 문화도시에 거점 확대
- (전통문화 홍보) 해외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"트래디셔널 코리아 익스포" 운영(2개소, 15억 원), 한류 예술인 협업 전통문화 콘텐츠 제작(15억 원)

6. 현장 속으로, 다시 뛰는 한국(케이) 스포츠

- ◇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쉽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
- ◇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
- ◇ 스포츠산업 혁신 지원으로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“스포츠” 재조명

1. 일상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

- (생애주기별 활동 지원) 유아·청소년·대학생·중장년·노년 맞춤형 스포츠 활동으로 평생 운동 습관화
 - * (유아) 체육 교실, (청소년) 정규 체육교육 강화 및 방과 후 활동, (대학생) 대학클럽스포츠 대회 종목 확대, (중장년) 야외스포츠 및 달리기 활성화, (노년) 어르신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(23년 3개소)
 - 특히 종목단체·지정스포츠클럽의 지도자 파견, 시설 활용 연계 지원 등으로 학교 정규수업·방과 후 체육활동의 질적 제고
- (국민 체력관리) 운동하는 ‘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’(1인당 최대 5만 원), 체육시설 소득공제 추가로 국민 스포츠 활동 및 산업 활력 제고
- (스포츠클럽 활성화)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확대(22년 69개→23년 120개) 및 예비지정제 도입*으로 전국 스포츠클럽 저변 획기적 확대
 - * (기존) 등록/지정스포츠클럽→ (개선) 등록/예비지정/지정스포츠클럽
- (지역 맞춤형 체육시설) ‘학교형’, ‘유아형’ 등 지역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지원모델 개발 및 건립 지원 지속(22년, 670개→23년, 716개)

2. 엘리트 체육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

- (국가대표 처우개선) ▲훈련수당 인상(22년 7만 원→23년 8만 원/1일), 촌외훈련 숙박비 인상(22년 4만 원→23년 6만 원), ▲트레이너 고용개선*
 - * 고용기간 확대(22년 11개월→23년 12개월),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
- (시설확충) 국가대표 체계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확충*
 - * (신규) ▲평창동계훈련센터 개소·운영(31억 원) ▲진천선수촌 특수훈련장 조성(60억 원) ▲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·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타당성 분석(각 3억 원)
- (보편적 체육인복지 본격 시행)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·운영, 연금 등 체계적인 체육인 생활 지원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사 선정(23년)

- (선수 육성체계 개선) 역피라미드형 우수선수(꿈나무-청소년-후보-국가대표) 구조 개선을 위해 단계별 연계성 강화(197억 원)
 - (영재 육성) 지역별 기관(종목단체-대학-클럽-지역센터) 간 협업 프로그램('23년)
 - (학생선수)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 신설('23년 20개교) 및 운동권과 학습권의 조화로운 보장* * 출석인정일수 기준 완화(혁신위 권고안 재검토)
 - (직장운동경기부) 실업팀 하계종목 창단지원 신설('23년 6팀) 및 훈련 지원확대
- (스포츠 과학 지원) 과학에 기반한 국가대표 밀착지원 확대('22년 68종목 →'23년 80종목) 및 동계스포츠과학센터 구축 추진('23년 타당성 조사), 지도자 코칭을 위한 종목별 특화 스포츠과학 아카데미 운영('23년, 4억 원)

③ 스포츠산업 혁신 지원

- (단계별 기업 지원) 창업 예비·초기(3년 미만)-중기(7년 미만)-중소기업-선도기업 등 성장단계별 스포츠 기업 맞춤형 지원*(300억 원, 320개소)
 - * 창업 교육, 제품·서비스화, 홍보·판로개척, 후속 투자 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 등
- (스포츠 기업 금융지원) 이차보전 방식 신규 도입(1,560억 원 대출 지원), 다양한 기업군에 대한 펀드 투자 활성화('23년 신규 250억 원 결성)
- (기술 융복합 지원) 스포츠용품제조기업+정보통신기술(ICT)기업 협업으로 디지털전환 지원(125억 원), 스포츠 분야 균형 있는 연구개발* 확대
 - * (예시)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,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등

④ 케이컬처와 함께하는 스포츠교류

- (문화 올림픽 구현)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계기 한국문화(케이컬처)의 매력과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개·폐회식 및 주요 문화행사* 운영 준비
 - * 개최도시 문화 특색을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·교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병행
- (국제 스포츠 행사 성공개최·참가) 국내 개최 예정 국제경기대회·국제기구 총회 개최*, 국제대회 참가** 연계 한국문화(케이컬처) 매력 확산
 - * (개최)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('27년 8월),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('23년 5월), 체육기자연맹 총회(5월)
 - ** (참가) 월드베이스볼클래식(WBC, '23년 3월), 피파 여자월드컵(7월),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(9월) 등
- (한국 스포츠 브랜드 육성) △(태권도) 해외 사범파견(60개국) 및 해외 현지 태권도 수업 지원(40개국) 등 전 세계 확산, △(씨름) 전통 씨름 재현 및 체험행사, 관람객 흥미 제고를 위한 씨름대회 개편 등